

우리는 지금 정보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지구촌”이란 말이 실감나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맞게 국가는 수준 높은 교육을 그 구성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의 선택권을 주장하는 자비유학 전면 완화에 대한 찬성론’과 ‘국민적 위화감을 조장하는 자비유학 규제완화 반대론’ 사이에서 갈등을 겪어 오다 초·중·고등학생의 자비유학 관련 규정을 바꾸게 되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이와 관련하여 그 이전에도 있었던 조기유학의 열풍은 더욱 심화되면서 최근에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교육환경에서는 만족할 만한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판단과 자신의 능력에 따라 바람직한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라고 할 수 있다. 조기 유학의 최대 장점은 양질의 선진국형 교육을 받고, 입시지옥에서의 탈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외교관, 공무원, 상사직원, 유학생 등 해외에서 생활하다가 귀국하는 사람이 매년 늘고 있으며 2001년도 국민 출국자중 학생은 654,123명(10.3%)으로 최근의 사회 현상인 외국어를 조기에 습득할 목적으로 부모를 동반하고 출국하였다가 귀국하는 학생들까지 고려하면 귀국학생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의 국내 재적응 문제는 초·중·고 교사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법무부 출입국관련통계, 2001). 실제로 1999년 1·2학기 중 귀국한 조기유학생 6,510명 가운데 초등생이 3,897명으로 전체의 59.9%에 달했고 특히 해외체류기간이 2년 미만인 초등생이 1,817명, 2~3년이 987명으로 정상적인 학업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00. 7. 2). 해외 귀국유학생의 실태를 지적한 대중매체들의 보고 내용을 보면 그 적응

및 실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최근 정신병원에서는 경제난으로 조기 귀국한 유학생 환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대부분 한국의 교육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조기유학을 갔다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여파로 부모에 의해 불려온 중, 고교생들로서 서울 B정신병원과 S종합병원의 경우 1998년 들어 외래 또는 입원한 청소년환자의 15% 정도가 귀국유학생이며, 이전 해까지는 10% 미만이었다는 것이 병원측의 설명이다. 서울대의대 신경정신과 류인균(柳仁均)교수는 “이들 환자는 과거 적응에 실패했던 한국에 되돌아와 다시 적응하기가 어려워 잠재의식 속에 좌절감과 분노가 쌓여있다”고 설명하고, 이는 약물중독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고있다(동아일보, 1998. 5. 25).

현재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약 1만여 명의 귀국학생들 중 10% 내외인 1,000여 명이 국내 학교 생활에 부적응 현상을 보이고 있거나, 적응하지 못하고 재출국하는 사태가 생겨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1997년 2학기부터 귀국학생이 많은 시·도 교육청에 ‘귀국학생 특별 학급’을 설치하여, 부모의 거주 이전으로 인하여 해외에서 귀국하는 학생들의 적응을 돕고 있다. 귀국학생들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해외 거주 후 귀국학생들과 일반학생들과의 비교연구가 대부분이고, 이들의 문화와 생활적응, 스트레스 대처 및 사회병리적 현상, 적응 및 자아존중감, 교사와 학부모들의 귀국자녀에 대한 기대수준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일반 아동들에 비해 해외거주 후 귀국학생들은 신체, 가정, 학교 적응에는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으나 학습적응에는 의미있는 상호작용의 차이를 보였고(최화순, 1990), 역시, 김미경(1999)은 귀국학생들이 외국 생활에서와 국내에서 가장 차이를 느끼는 것이 ‘학습의 내용’이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귀국

학생들에 비해 일반학생들이 신체, 건강, 사회적 가치에서 더 많은 관심과 고민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고(안인경, 1985). 귀국아동들보다 일반아동들이 오히려 생활스트레스를 더 받는다는 연구가 있다(김충희, 1996; 김효기, 2002). 이 연구들은 귀국학생들이 일반아동들에 비해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하는 원인을 가정경제 수준과 부모의 지지적인 가정환경에서 찾고 있고, 귀국학생들의 적응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언어상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권선미, 1997; 김미경, 1999). 이렇게 이제까지 해외거주 후 귀국한 학생들에 관한 연구는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고, 학생들이 생활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는 학교에서의 경험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기존의 검사나 틀에서 이들을 해석하려는 시도를 보여 왔으며, 연구결과 또한 현실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거나 일관적이지 못한 실정이다(김충희, 1999; 김효기, 2000; 신진우, 1997; 안인경, 1985; 최희순, 1990). 더 나아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정체성의 혼란과 입시준비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기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외거주 후 귀국한 청소년인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연구방법을 탈피하여 질적 분석방법을 취하여 이들의 학교생활 경험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자 한다.

교육수요자 중심의 학습권과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문제를 바르게 진단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교육적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측면에서 도움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2000년에 초, 중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 5435호)되어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통

해 해마다 교육대학원을 통해 많은 수의 현직에 있는 교사들이 상담교사로서의 훈련을 받고 배출되고 있다(김충기, 강봉규, 2001). 현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조기 유학과 관련하여 이들이 외국에서나 귀국하여 적응하는 문제 파악은 가치 있는 연구주제로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상담교사들이 귀국학생들의 문제를 바르게 파악하고 적절한 상담 및 생활지도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귀국 중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 실태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이들을 위한 효율적인 상담 및 생활지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들의 외국 생활의 경험을 살펴보고, 귀국하여 이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적응에 도움을 주는 지도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해외거주 후 귀국한 중학생들의

첫째, 외국에서의 학교생활은 어떠하였는가? 또한 어떻게 적응을 하였는가?

둘째, 한국에서의 학교생활은 어떠한가? 또한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가?

셋째, 외국과 한국에서 각각 적응에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인가?

방 법

대상

본 연구는 소도시로 서울에 인접한 인구 80만에 이르는 부천시 관내에 있는 귀국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0개 중학교에서 대상자를 파악하고 선정하여 차례대로 개별 면접 계획을

세웠다. 대상자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폴란드의 서구문화권에서 생활하던 학생들로 외국에서 1년 이상의 거주기간 동안 학교를 다니다 귀국한 지 4년 미만이 되고 곧바로 일반학급에 배치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면접실시 과정에서 예상치 않게 자퇴자가 3명이 있었다. 1명은 이전에 살던 국가로 가족과 함께 이민을 갔고, 2명은 입학한지 얼마 안되어 학교생활에 적응하기가 힘들다고 자퇴한 후 김정고시를 준비한다고 하였다. 면접에 참여한 대상자는 여학생 5명과 남학생 9명으로 총 14명이며, 이들의 나이는 14-15세였다.

자료수집 방법과 절차

질적 면접

본 연구는 해외에서 생활하다온 학생들의 귀국 후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특정한 현상에 대한 연구이므로 연구대상에 대한 심층적 정보와 이해를 획득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질적 연구 방법인 면접을 활용하였다.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심층면접으로 공통적인 경험을 추출하였다.

어떤 주제에 대해 응답자가 그의 느낌과 믿음을 자세히 표현하거나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비체계적인 개인면접법을 활

표 1. 연구참여대상자

사례 번호	성명	성별	해외거주 국가	외국거주 기간	귀국 기간	외국거주 사유	우리말 사용 정도 (자기보고 척도: 못함, 보통, 잘함)
1	현명	남	미국	4.06	4.00	부모 직장	읽기, 쓰기, 말하기 보통
2	*동화	여	미국	4.00	4.00	부모 유학	읽기, 말하기 잘함, 쓰기 보통
3	*남진	남	영국	7.00	2.00	부모 직장	읽기, 쓰기 보통, 말하기 잘함
4	*열이	여	미국	5.06	2.00	부모 직장	읽기, 쓰기 보통, 말하기 잘함
5	*미소	여	미국	3.00	1.11	부모 직장	읽기, 쓰기, 말하기 잘함
6	아인	남	캐나다	1.00	1.02	초기 유학	읽기, 쓰기, 말하기 잘함
7	유락	남	폴란드	5.09	1.01	부모 직장	읽기 못함, 말하기 보통, 쓰기 잘함
8	공은	남	영국	1.07	1.03	초기 유학	읽기, 쓰기 잘함, 말하기 보통
9	손고	남	미국	2.00	1.01	초기 유학	읽기, 쓰기, 말하기 잘함
10	대안	남	미국	3.09	0.08	부모 직장	읽기 못함, 말하기, 쓰기 보통
11	일라	여	미국	2.00	0.08	초기 유학	읽기, 쓰기, 말하기 잘함
12	정환	남	미국	1.06	0.06	양자	읽기, 쓰기, 말하기 잘함
13	윤진	남	미국	2.02	0.04	초기 유학	읽기, 쓰기, 말하기 보통
14	무란	여	미국	5.07	0.04	부모 직장	읽기, 쓰기 보통, 말하기 잘함

주. 이름은 모두 가명이며 귀국 기간 순으로 정리함.

이름 옆에 *은 초등 특별학급에서 적응기간을 거친 학생임.

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반구조화된 면접’ 방식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방식에 융통성을 부여하고, 답변 중에서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적인 질문을 해나가며 신뢰도를 높였다. 질문의 주요 내용은 첫째, 외국에서의 학교생활 경험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어떻게 적응하였는지? 둘째, 한국에서의 학교생활 경험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어떻게 적응하였는지? 셋째,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나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는가의 내용으로 반구조화된 질문기법을 사용하였다.

면접은 주은선 교수의 지도감독 하에 상담과 면접기술을 훈련받은 정재욱 연구자가 2002년도 9월과 10월에 거쳐 연구대상자가 다니는 학교에 공식적으로 면접을 의뢰하여 대상자와 대상자의 부모에게 면접을 하겠다는 양해를 구하고 시간과 장소, 미리 준비한 질문에 의해 이루어졌다. 좋은 면접을 위해서는 참여자가 가능한 한 긴장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므로(이용숙, 김영천, 1999) 약속 장소와 시간은 대상자에게 가장 편리하도록 배려하여 시간은 학교 수업이 끝난 방과후로 하고 면접장소는 학교측의 배려로 대상자가 다니는 학교의 상담실이나 휴게실을 이용하였다.

자료 수집

자료는 대상자와 면접당시의 상황을 녹음하여 수집하였다. 외국에서 귀국하여 겪은 경험을 통해 적응상의 문제는 어떤 것이 있으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는지를 실증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만나 심층면접하고 대상자들의 동의하에 모든 내용을 녹음하였다.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을 위한 전사(transcription)시에는 개별적으로 심층면접하여 대화한 내용들을 그대로

기술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 느낌이나 생각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충분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자료를 많이 확보하였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근거이론으로 유명한 Glaser와 Strauss(1967), 그리고 Werner(1987)에 의해 지지된 방법인 귀납적 접근을 적용하여 자료가 수집될 때까지 어떠한 자료도 미리 약호화 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료에 근거하여 약호화와 주제의 이름을 개발하고 부여하는 방법을 썼다. 대상자 14명의 개별면접은 녹음하여 모든 내용을 전사하였으며, 전사된 자료를 읽으면서 텍스트(text)의 특정한 부분이 어떤 특정한 주제나 이슈(issue)를 언급할 때는 연구문제나 이론적 관점에 근거하여 그 특정 부분을 잘 설명해주는 주제(theme)로 이름을 부여하였다. 주제별 약호화 과정에서 추출된 문단은 1,297개이며, 주제의 의미와 생성작업을 통하여 9개의 주제를 얻었으며 이 주제는 크게 친구, 학업, 교사의 3개 영역으로 묶을 수 있었다. 주제별 사례는 주요사건분석(key incident analysis)의 일환으로(Ericsson & Simon, 1984) 친구 영역에서 93개, 학업영역에서 78개, 교사영역에서 50개(총221개)의 사건이 추출되었고, 이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며 결과가 의미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내용을 엄선하여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타당도 작업을 위해 질적 분석과 해석에 관한 동료연구자의 조언과 지적(peer debriefing)에는 주은선 교수(덕성여대 심리학과)와 박성혜 교수(덕성여대 교직과)가 참여하여 원자료가 정확한 영역에 존재하는지, 그 영역의 모든 중요한 자료가 발췌되었는지, 중심개념을 말로 표현한 것이 간결하고 원자료를 반영하는지를 검토하여 연구자들이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논의를 통하여 합의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연구자가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고 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평가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개별면접은 ‘반구조화된 면접’으로 면접자가 질문 내용을 미리 외워 놓고 ‘비구조화된 면접’ 처럼 대화 형식의 면접을 진행하였으며(이용숙, 김영천, 1999), 다만 이와 같은 면접기법에 있어 면접자는 특히 중립성, 공평성, 자연스러움, 일상 회화의 분위기 조성, 친절, 진지함이 필요하였다.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이 방법의 장점은 질문에 대해 설명이 가능하고 또한 정확한 자료 수집이 가능하나, 응답자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다(채서일, 2000). 연구자는 먼저 학생의 이름을 확인하고 만나서 반갑다는 인사말과 함께 연구자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였다.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말하고 면접에 임해줄 것과 이야기를 녹음해도 좋으나는 허락을 구하였다. 학생들은 순순히 허락을 하였으며 대부분 적극적인 자세로 면접에 임하였다. 면접을 하기 전 연구자는 한번도 만난 적이 없는 학생이 과연 자기의 경험이나 생각을 진솔하게 밝혀줄 것인가의 의문과 한국어 실력 부족의 우려를 하였으나, 표 1에서 제시하였듯이 이들의 국어 실력은 보통이상이었으며, 개방적인 서구문화와 생활의 영향도 있었지만 순수한 청소년답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 처음에는 은근히 저항과 경계를 하나 면접이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기 표현에 주저함이 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는 해외 거주 후 귀국한 중학생들의 외국 생활의 경험을 살펴보고, 귀국하여 이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적응에 도움을 주는 지도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

로 활용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결과에 대한 설명은 ‘첫째, 외국에서의 학교생활은 어떠하였는가? 또한 어떻게 적응을 하였는가? 둘째, 한국에서의 학교생활은 어떠한가? 또한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가? 셋째, 외국과 한국에서 각각 적응에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인가?’의 연구문제에 근거하여 그 특정 부분을 잘 설명해주는 주제들을 나누고 분석한 결과 해외거주 후 귀국한 중학생들의 공통적인 생활적응특성을 총 9개의 주제로 추출해낼 수 있었고 이는 3개의 영역으로 묶을 수 있었다. 학생들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면접전사 내용을 부분적으로 이용하여 결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영역 1. 친구

해외거주 후 귀국한 중학생들이 외국과 한국에서 둘 다 적응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친구와 관련된 경험이 있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한 명 이상의 도움을 주는 친구가 있었다는 것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보고하는 경험이고, 이러한 친구들과 공감적 유대 관계를 형성할 때는 문화적 이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피상적인 관계가 아닌 자신의 마음을 읽어주고 털어놓을 수 있는 진솔한 친구가 도움을 주었고 또한 이러한 관계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주제 1. 적응에 도움을 줄 때는 반드시 한 명 이상의 도움을 주는 친구가 있었다.

미국, 영국 등 서구권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그 나라말을 모르는 새로 온 입학생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1명 또는 2명 정도의 도와주는 학생을 지정해주었으며, 외국 친구들은 새로 온 친구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이것저것 물어보며 친절

하게 관심을 표현하고, 특히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 주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귀국을 해서는 외국에서만큼 이러한 도움을 받지는 못했다고 하였다.

처음에 학교 가서도, 그 학교에서 애 두 명을 붙여 주었거든요? 저한테 도와주는 애로요...어...한 명은 되게 착했어요 근데 한 명은요 조금 노는 애였거든요? 그리고 그 노는 애하고는 별로 친하지 않았는데요, 그 한 명은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그래가지고 개 아니었으면 아마 적응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단어 같은 게 있으면요, 개가 맨 날 옆에 앉았거든요? 개도 친구가 많은데요, 저 도와주느라고 개가 제 옆에 맨날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모르는 단어 알려주고 다 설명해주고... 일부러 말을 빨리 하잖아요? 영국 애들은요. 근데 저 잘 알아들으라고 천천히 되게 느리게 해줬어요. (사례 #8)

썸머스쿨에서 친구 하나를 사귀었는데요. 저보다 두 살 나이가 어린데요. 마크라고. 캐나다 애고. 금발이고 파란 눈에...개가 처음부터 친하게 굴어 가지고 저한테 와 가지고요. 저와 제 동생 한 테랑 와 가지고 말도 많이 걸고 같이 놀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캐나다에서 오기 직전까지 같이 계속 같이 사귀고 그랬어요. (사례 #6)

주제 2. 친구들과 공감과 유대 관계를 형성할 때는 문화적 이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

문화가 갖는 구속은 개인에게 다른 사람과 같은 행동양식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며 기대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은 친구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같이 이야기도 하고 놀이도

즐기는데 이로 인해 문화적 이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 즉, 서로가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 때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서로를 받아들여 친구가 된다. 친구가 되기 위해 무엇보다 그들이 하는 놀이를 같이 하고 행동을 따라한다고 하였다. 자기 또래의 문화를 모르면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고있고, 친구들이 주로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대화의 주제는 무엇인지를 알아야 같이 어울리고 친구가 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 애랑은 오케스트라반에서 친하게 됐는데. 그 거기서요. 제가. 5학년 때부터 그래 시작하는데요. 4학년부터 제가 시작했어요...바이올린을 하는데 그 아이도 같은 악기를 하니 친해졌어요. (사례 #14)

그래가지고 저도 어느 날 딱지를 사왔어요. 사고싶으니까. 그래서 해보니까 애들하고 많이 친해졌어요. (아, 딱지놀이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하는 놀이를 나도 할 수 있을 때). 네, 만약 애들이 무슨 놀이하는데 친해지고 싶은 애가 그런 놀이하기 싫고 그러면은, 아예 친구가 안 생기는 거 같아요. (친구가 안 생기는 거 같아요?) 네. 왜냐면 친구들이 재미있어야 같이 놀 거 아니에요 (사례 #3)

처음에 와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게 대화 주제 같은 것도... 할 것도 없었고...지금은 괜찮은데... 옛날에는 뭐 가수들 같은 것도 전혀 모르니까 애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했는데... 제가 그래서 엄청 많이 노력했어요, 어울리려고 (웃음) (오! 그래서 어떤 노력을 했어, 어울리려고?) (웃으며) 아... 진짜 개네들이 하는 말투나 행동 같은 거 진짜 세심히 봐서... 나한테 맞춰 가면서 너무 받아들이면 내가 너무 낮아

지니까 내 이미지에 맞게 맞춰가면서. (사례 #5)

**주제 3. 자신의 마음을 잃어주고 털어놓을
진솔한 친구 관계를 원한다.**

학생들은 외국생활의 가장 힘들었던 점을 외로움이라고 했다. 막상 외로움을 느끼니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진솔한 친구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자원봉사자 친구는 싫다고 하였다. 자원봉사자 친구는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의무감에서 친구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애 아니면 적응하기 힘들었다고 말할 정도로 도움을 많이 받았어도 속마음을 잃어주고 털어놓을 만큼 친밀한 사이는 아니었다고 생각했다.

처음에 갔을 때 외로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외로움?) 네. 친구들이 없으니까요. 음... 자원봉사자 같은 건 안 좋을 것 같아요.... (자원봉사자는 안 좋아요?) 네. 이렇게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원봉사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런건 안 좋은 거 같아요. (어떤 거?) 어딜 보면요, 음... 그러니까... 일부러 막 친구인 척 하는 애들 있잖아요. (아, 친구를 해주겠다는 자원봉사자가 있다?) 예, 그런 건... (그런 건 싫다고?) 네. 진실된 친구가 아닌 것 같아요. (사례 #8)

제가요, 뭐 이렇게 뭐 해줄까? 그러면 해줘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번 사줘요. 그리고 내일 또 사달라고 그래요 그럼 뭐 사줄 때까지는 개네들은 친한 척을 해요. (사줄 때까지는?) (웃으며) 그리고 사줄때는 괜찮은데 나중에는 그냥 모르는 척해요. (사례 #3)

또한 진솔한 친구는 국적과 상관없이 다 똑

같은 친구로 보고있다. 귀국학생 중에는 외국 친구와 둘도 없는 사이가 되었고, 지금도 편지와 선물을 보내기도 하며 한국으로 초청할 계획을 갖고 있기도 하였다.

가자마자 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좋지가 않아 가지고요, 한국 오고싶고 그래서 고모한테 많이 조르기도 했는데요. 그게 딱 지나니까는 훨씬 좋았어요 친구들이 그냥 잘해주시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 주구요.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 주고) 그렇게 같이 놀아주고 얘기해 주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무슨 일 있으면 저도 초대하고 그래요. (어떤 때 초대했어 주로?) 그냥 주말에요. 놀고싶을 때와 가지고 같이 자고 그랬어요. (어, 같이 자기도 하고.) 고모한테 허락 받고 애들 데리고 와 가지고 자고 그랬어요 친구네 집에 가서 자기도 하고. (왔다 갔다 했구나 친구들이랑.) 네. (사례 #12)

(한국에 나와서는 적응하는데 가장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 아무래도 친구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래도 친구들?) 네. (그 쪽 친구들보다는 한국 친구들이 더 좋아?) 아뇨, 똑같아요. (다 똑같은?) 다 좋아요. (사례 #7)

진솔한 친구는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친구라고 보고한다. 잘못했어도 지지(支持)와 격려(激勵)를 해주면 그로 인해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받기 때문이다. 친하게 구는 것은 그냥 평범하게 같이 놀거나 착하게 대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귀국학생들은 외국에서는 친구들이 실수를 하면 그것으로 끝내고 새로 시작하는데 한국친구들은 실수를 쉽게 용납해주지 못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주변의 친구들이 용서와 화해로 실수를 해도 털털하게 넘어가 주면

좋겠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말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은 장난이라도 개네한테는 좀 안 좋은 말로 들릴 수 있으니까... 실수 딱 한 번 만해도 애들이 평생 싫어해요. (오...) 영국은 실수해도 다음부터는 잊어버려 주고 새로 시작하는데, 한국은 그거 하나 때문에 차별하고 그래요. (평생 간다?) 네. (주로 친구들한테 하는 실수는 뭐가 있을까?) 어... (생각하다가) 학교에서 내가 (게임) 아이템 하나 줄게 그러구요, 그 날 만나서 없다고 장난으로 말하면 그 다음날 와서 애들한테 재는 거짓말하고 아이템 안 준다고 그러구요 그게 반으로 소문나요. (음...) 그러면 다들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왕따가 되는 거죠 영국에서는 그런 거 그냥 수월하게 넘어가 주는데 한국은.....(사례 #3)

맞지 않는 과목은 수준을 따라가려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었다. 학력의 수준차이로 인한 학업문제는 귀국학생들의 학교생활을 힘들게 한다고 하였다.

한국에 와서요, 불편한 거... 저기 폴란드에서 공부 잘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그... 옛날 학년 꺼 하고 있거든요 (옛날?) 그게 아니라 지금 4학년 것부터 다시 하고 있거든요. 아니 집에서요 4학년부터 계속 올라가면서 문제부터 풀고 있거든요. (4학년 문제를 풀고 그래. 국어? 영어?) 다요. 아니, 영어는 안 해도 되구요. 국어하고 수학 같은 거 계속 풀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냥... 좀 제 공부하고 싶어요 그냥 중학교 2학년 꺼 그냥... (중학교 2학년 꺼 하고 싶다고?) 네. (그럼 혼자서 해. 집에서는 누가 가르쳐 주지않고?) 엄마가 봐주세요. (사례 #7)

영역 II. 학업

학생들이 친구 다음으로 적응에 관련된 공통된 경험 중에 학업과 관련된 경험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외국과의 학력수준 차이를 경험하고 있었고, 특히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와 같은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학교 수업이 좀더 흥미로웠으면 하는 바램을 토로하고 있다.

주제 4. 외국과의 학력수준 차이를 경험하고 있다.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학업부분이었다. 언어는 일상적인 의사소통에는 지장이 없지만 익숙하지 않아 수업을 이해하는데 커다란 방해물이 된다고 하였다. 일부 교과목은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많으며 외국학교와 진도가

수업할 때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 귀국학생들 중 일부는 외국에서 살면서 한국의 학습지를 받아 기초를 닦은 경우도 있고, 외국현지에서 주말에 운영하는 한글학교를 다닌 경험도 있으나 국내 교육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국사, 사회, 한문, 도덕 등 몇 과목과 학생에 따라서는 수학에서도 많은 괴리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과외, 학원 등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며 다섯 과목이나 과외 선생님께서부터 개인지도를 받고 있는 학생도 있다.

공부할 때 과외선생님한테 많이 배웠어요. (과외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세요?) 네. (그럼 집에서 과외 하는 거야? 아니면 학원 가서?) 집에서. 학원은 엄마가 선생님이 나한테만 단어 가르쳐 주고 그런 거 안 하니까 차라리 과

의를 하래요. (개인 과외?) 아니... 과외 하는 과목들이 과학, 국어, 수학, 사회, 컴퓨터. 아, 근데 선생님들은 세 명이나 되요. (사례 #10)

그냥... 어... 영어 못하는 애들 따로 불러 갖고요. (따로 불러서?) 어렵게 하는 것 보다 쉽게 그냥... 네. 공부 같은 것도 그렇게 그냥 하고. (공부도 그렇게 해주고.) 네. (어. 그 다음에 여기 한국에 와서는?) 다른 거는... 너무 공부위주로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힘들었어요. (공부위주로만 하는 거 같아서? 그러면 주로 공부 가 힘들면은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아? 공부 는?) (생각하다가) 그런 건 없었어요. (사례 #12)

수업방식의 차이로 나름대로 자신있는 영어와 같은 과목도 좋은 성적을 올리지 못한다는 것에 속상하다고 하였다. 귀국학생들이 한국에서 가장 공부하기 좋아하고 자신 있는 과목은 영어라고 하였으나 학생들 중에는 영어도 문법위주로 지도하기 때문에 그리 좋은 성적은 안 나온다고 하여 위축된 경험을 보고하고 있다.

한국은 문법위주로 하잖아요? (문법위주로 하고.) 네. 거기서는 말로만 하니까요. 그 사람들도 문법은 다 안 지키거든요? 특히 제 나이 또래는 그렇게 다 잊어버려요. 그 나라 애들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문법위주야?) 네. 그래가지고. 그게 힘들어요. (사례 #8)

주제 5. 시험(중간, 기말고사)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한국 사회의 고조된 교육 분위기는 외국에서 생활하다 돌아온 부모님들의 생각도 바꾸어 공부와 시험 성적에 많은 관심을 갖게 한다고 하였다. 외국에서 생활할 때는 공부에 대하여 비교

적 너그럽게 자율성을 존중해주던 부모들도 한국에 들어와서는 공부하라고 다그친다고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대부분은 귀국하기를 싫어하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시험 때문이라고 하였다. 시험과 성적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이다. 귀국한 학생들 표현을 빌면 ‘너무 많이, 막, 열심히’ 공부를 시키는데 왜 그렇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외국에서는 공부는 스스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했으며, 시험 같은 게 없어 자유롭게 놀 수도 있는 여유가 있었다고 하며 외국이 좋은 건 공부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학생들이 스스로 느끼기에도 너무 어린 나이에 시험으로 장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고등학교를 인문계로 갈 것인지 실업계로 갈 것인지를 중학교 때 시험성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보고한다. 외국에서 있다 와서 국내 교육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시험성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어 불리하고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면 이상하게 보는 것도 견디기 힘들다고 하였다.

시험 보는 거. 많이 부담 돼요. 지금 중학생은 좀 어리잖아요. (중학생은 어리지.) 그런데 시험 봐 가지구 실업계, 인문계 갈라지니까요. (아아. 시험 봐 가지구 인문계, 실업계 갈라지니까.)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갈라지니까요. (오. 오.) 그래서 공부 좀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례 #9)

미국이 더 좋아요. 공부 못해도 괜찮은데. 한국에서는 학교 이상한테 가면, 그런데 가면, 그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아아. 그렇구나.) 그리고 내가 안 좋은 일하면 그때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보고. (사람들이 가만 놔두면

좋겠는데.) 미국에는 내가 무엇을 하던 말든 상관을 안 하는데. 희한해. (사례 #11)

공부를 강요하여 화가 난다고 하였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공부를 지나치게 강요하며 학교에서 공부 따라가기도 힘든 데 집에서까지 공부하라는 말을 듣게되어 스트레스를 받게되고 그 스트레스를 적절히 풀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하였다. 오로지 전에 살던 외국으로 다시 가고 싶은 생각만 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또 과목도 많으니까. 또 엄마가 요즘에는 공부하라, 공부하라 하시니까. (아, 미국서는 안 그러셨어. 공부하라고) 아. 공부하라고 하시긴 하셨는데요. 와 가지고 더 심해지셨어요. (더 심해지셨어?) (웃음) 한국엄마들이 그러시잖아요. 아빠도 하라 하시죠. 요즘에. (따라 웃음) (하라고 하셔. 그러니까 어때?) 요즘에요. 저도 화가 나 가지고 반항을 한다고 그래야 되나. (사례 #13)

월요일이 시험인데 걱정이예요. (월요일이야. 그래서 이렇게 시험 준비하고 힘든 거 이런 거는 누구랑 이야기하고, 나름대로 스트레스는 어떻게 풀어?) 그냥 혼자서. (혼자서?) 혼자서 있어요. 방에서. (혼자서 방에 있어. 방에서 뭘 해.) 잘 때. 그런 거 생각하다가 잠들어요. (어떤 거 생각해?) 이렇게 해야되는데. 뭐. 그런것들. (사례 #14)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강하게 보이고 있었다. 학생들은 외국에서 살 때에도 한국의 학원, 과외, 시험 등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고 이것으로 인해 학생들은 외국에 있을 때부터 한국 학

교에 대한 좋은 감정보다는 공부하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귀국하게 된다고 하였다. 대부분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자세가 갖추어져 있는 학생들은 외국에서 7, 8시간씩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공부를 하기도 했다고 하고 스스로 즐겁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여건을 마련해주었다고 하였다.

(한국가면 어떤 생각이 들기에 싫었어요?) 제가 1학년 때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네요. 무지 힘들게 치러 가지고요. (아! 시험 준비하는 그런 거.) 네. 그렇게 싫어 가지고요.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힘들었지?) 아니 엄마가요. 전 그때는 딴 애들은 학원을 종합반 같은 걸 다니는데 저는 안다니고 집에서 혼자 했거든요. (학원 안 다니고 혼자 했구나.) 그래 가지고 되게 엄마가 힘들게 시키고 그랬어요. 힘들었는데 성적은 잘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또 캐나다 가니까 시험을 네 번 안쳤으니까 또 이제 시험 치른다는 생각에 싫어 가지고요. (사례 #6)

제가 한국에 오니까요 공부하라고, 공부하라고 강요하는 게. 싫어요. (공부에 대해) 네. 그게 싫어요. (그게 싫어?) 네. 거긴 다 알아서 하게 하는데. 장학금도 받고 그럴 정도로. 거기서요. 제가 생각해도 공부 누가 하라고 안 했는데도 제가 스스로 했거든요? 근데 여기선 그게 안 돼요. (여기선 그게 안 돼?) 네. (왜 그럴까? 그건 무슨 이유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서는 딴 나라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못 미치니까 좀 따라가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잘 안돼요. (사례 #8)

주제 6. 흥미로운 수업을 경험하고 싶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외국서는 말이 안 통해도 학교 가기가 즐거웠다고 보고하고 있다. 낯선 환경이지만 첫날부터 외국학교가 좋았던 학생도 대부분이다. 공부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놀면서 배우고 실험과 실습을 많이 한다고 하였다. 개인차를 고려하여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은 반을 따로 만들어 지도해 주었다고 한다. 귀국학생들이 학교에 처음 와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지루함이라고 보고한다. 온 종일 앉아서 말로만 하는 수업을 듣다 보면 지루해지고 잠이 온다는 것이다. 학생은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였다. 학습활동이나 선택권이 자기에게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때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외국에서는 언어로 인한 장벽은 있지만 이해하기 쉽게 실험과 실습위주의 수업을 하기 때문에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진도를 따라갈 수 있었다고 한다. 학생들의 표현대로 ‘말로만 하는 수업’은 귀국 학생들에게는 힘든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가 막. 여기랑 다르잖아요. (어떻게 달라?) 우리가 움직여 다니고 반을. (아. 내가 막 다니고 그런 거. 또?) 수업하는 것도 좀 다르잖아요. 거기는 좀 더 자기가 해 보는 것이 더 많고. (자기가 참여해서 해보는 것이 많고) 더 쉬워요. 더 쉽고, 재미있고 여기는 계속해서 앉아서 있어야 되고. 지루하고. 좀 막 시키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야된다. 스트레스를 주고. 왜 그렇게 막 시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구나.) 네 (사례 #14)

한국에 별로. 오기가 싫었어요 그냥. 미국에서 생활하는게 여기서 생활하는 거보다 더 재

미있는 거 같고..... TV에서 보면은 뭐 우리 나라가 학원도 많이 보내고, 과외도 많이 시키고 그러고 (아. 그런 거 봤어요.) 네. 그런 거 보 갖고 저는 그런 거. 되게 싫거든요. 어디 끌려 다녀서 배우고.....그래서 싫었어. 좀 제가 요즘 영어 공부도 해야되는데. (음. 영어공부?) 영어공부도 해야되는데, 이렇게 학교 공부에 매달려 갖고 해야 되니까 내가 조금 있으면 영어를 잊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움도 있고 귀도 이렇게 들리는데. 제가 TV 같은 거 많이 보아야 되는데 요즘 그런 거 못하니까..... 다 쌓아놓은 독이 다 무너지는 게 아닌가 싶고.....(사례 #4)

학습의 내용 이해보다는 외우게 하는 암기 위주의 학습은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음은 물론 학생들에게 학습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문제로 남는다. 또한 실기위주여야 할 체육 과목조차 외워서 시험을 보는 것은 학생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였다.

저는 지금. 그냥 제 생각인데요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180도로 확 바뀌어 버렸으면 좋겠어요. (웃음) (180도로 확 바꾸는 것은 어떻게 하면 180도로 확 바꿀까?) 글썽요 그냥 대충. 과목수 줄이고 특히 암기 과목이란 거 있잖아요. (음. 암기과목?) 체육도 책 봐서 막 다 외우고 시험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체육도 책보고 시험 봐야 돼?) 제가 말하는 게 그건데, 대충 나가서 한 다음에 뭐 그걸로 평가하면 되는 건데. 괜히. 책보고 다 외우라고 한 다음에 시험 보니까 좀 그래요. 좀 이해가 안 되고 저 나름대로 하기 싫고 그러니까 짜증나고 그래요. 교육제도가, 특히 좀 암기과목 같은 거 줄여주었으면 좀 좋겠어요 (사례 #13)

중학교 와서요 성적도 많이 떨어졌구요. (근데 영국에서 월반까지 했었다고 했잖아?) 네, 한국 와서 언어가 바뀌어서 그런지... 영국이랑 한국이랑 교육방식도 틀리고요. 한국에서는 선생님이 ‘이거 외워.’ 그러면 애들이 다 외우잖아요? 그런데 영국은 좀 더...한국에서 많이 안하는 거를 많이... 실험도요 한국은 과학 실험 중요한 것만 하잖아요? 거기서는 과학실험 항상 과학실에서 또 항상 우리가 하라고 그러고요, 못하면 도와주고 그렇게 하구요. 선생님이 ‘무조건 뭐 외워라.’ 그러지 않구요, 잘 이해하도록 말을 해요. 한국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따라가기가 힘들어...(사례 #8)

교사의 적극적이면서도 허용적인 교수방법과 다양하고 풍부한 학습자료와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재미있게 수업하기를 원하였다. 항상 똑 같은 몇 가지의 학습형태나 방법, 내용, 평가 등은 새롭고 흥미 있던 수업까지도 얼마 안가서 지루해지는 것이다. 열심히 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앉아 있을 때는 줄립기만 하다고 하였다.

수업을요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알건 모르건 다 설명하고 그냥 이거 다 외워,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가끔씩 가다 잘 이해가 되냐고 물어 보구요. 수업을 재밌게 안 풀리게 하구요. (안 풀리게 하고?) 네. 수업을 교과서에 있는 대로 말하지 말고 이야기처럼 꾸며서 말하면 애들이 잘 이해할 거 같아요 (사례 #3)

(내가 한국에 와서 다시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건 뭐가 있을까?) (잠시 생각하다가) 전 모르겠어요. 공부만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것밖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

다 그거 밖에는 없어?) 네. (그럼 어떻게 해주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을 거 같아?) 학교에서 줄지 말구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학원가서도 열심히 하면 괜찮을 거 같아요. (괜찮을 거 같아요?) 네. (그럼 조는 거는 어째서 줄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니까요 되게 졸려요. (사례 #12)

영역 III. 교사

친구와 학업 관련 경험 다음으로 학생들은 교사와 관련된 경험이 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들은 교사들이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대해주기를 희망하면서 나름대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교사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원한다고 하였다. 또한 외국교사들은 한국의 교사들에 비해 친밀하고 다정하였기에 한국에서도 이와 흡사한 교사상을 원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외거주 후 귀국한 학생들이 가장 혐오스럽게 느끼고 공포의 강도로 드러난 것은 학생들을 폭력을 가해서 때리는 체벌을 하는 교사였다. 이들은 수직적인 지시관계의 권위적인 교사의 태도를 혐오한다고까지 하였다.

주제 7. 다른 학생들과 동등하게 대하되 드러나지 않는 나름대로 관심과 배려를 원한다.

교사는 교과 학습도 가르쳐 주지만 부모 다음으로 학생의 생활 속에 가장 많은 시간과 공간을 함께 하게 된다. 학생들은 외국에서나 한국에서 적응하는데는 교사의 역할과 도움이 매우 컸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사가 다른 학생들과 동등하고 평범하게 대해주길 원했고 힘들지만 수업시간에도 똑같이 대해 주는 게 좋다고 하였다. 귀국학생들은 교사가 특별히 대하면

부담스럽고 그로 인해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귀국학생들이 느끼기에 급우들 중에 일부는 귀국학생들의 처지를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사의 두드러진 관심과 배려는 질투를 유발하여 다른 친구들이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친구들이 가지는 석연치 않은 감정과 그것으로 인해 자기에게 미칠 영향, 즉 소외나 따돌림 등으로 친구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고, 학생들은 이와 같은 미묘한 문제를 교사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친구들이 배를 맞을 때 같이 맞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고 한다. 학생들은 교사와 친하기보다는 친구와 친하는 게 낫다고 토로하였다.

(그래서 정환이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이대로가?) 네 그냥... 때리실 때 같이 때리시구요. (때릴 때 같이 때리고) 음... 혼날 때도 같이 혼내고 그러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럼 뭐 혼난 거 있었어요? 그 동안?) 처음에 왔을 때는 쪽지시험 같은 거 봐서 못 해도요 안 때리고 그러셨는데요. (아. 그래?) 그 땐 좀... 애들한테 미안하고 그랬는데 같이 때리시고 그러니까 훨씬 낫 것 같아요. (오. 딴 친구들 맞을 때 같이 맞으니까 맘이 편해?) 네. (사례 #12)

(어떻게 해주면 더 빨리 적응하고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요 선생님들이 따로 신경을 쓰지 말고요. 신경을 쓰면 애들이 더 거부 반응 같은 게. (오히려 신경을 안 써 주는 게 더 좋구나) 선생님들이 나만 더 예뻐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례 #6)

외국에서 온지 얼마 안되어 잘 하지는 못해도

수업시간에 발표를 시켜주었으면 하였다. 처음에는 아직 잘 모르니 하지 말라고 하면 무시당하는 것 같다고 보고 있다.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끌어 올려주고 발표도 시켜야 실력도 늘고 이렇게 대해주는 선생님을 좋아한다고 하였다. 외국 경험에서는 선생님이 첫날부터 혼자 시켜서 힘들었지만 더 빠르게 많이 배울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시험을 볼 때... 외국에 살다 온 애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너는 아직 하지마라, 너는 아직 안 된다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기분 나빠?) 그러니까 웬만큼 하게 해주고요, 또 못하겠다 말하면 그때는 괜찮다 하고 말해도 되지만, 그냥 처음부터 너는 하지마라 그렇게 말하면 되게 기분 나빠요. (아, 그래? 그런 적 있었어요?) 네. 다른 친구하고 똑같이 대해주고, 그 중에서 못할 때 그 부분만 끌어올려 주고 도와주고. (아, 처음부터 아예 무시해서 너 하지 말아라 하면...) 아예 실력도 안 늘구요, 되게... 선생님을 싫어하게 되요. (사례 #1)

귀국학생들은 드러나지 않는 관심과 배려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못하거나 못 알아 듣는 것이 있을 때 교사가 도와주기를 원하였다. 가끔씩 이해가 잘 되는지를 묻기도 하는 등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 힘들 때 살며시 다가와 지지해준 교사의 격려는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교사가 학생의 상황을 몰라 도와주지 못할 때 적응에 많은 곤란을 느낀다고 토로하였다.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편지도 써주고, 막... 써주시고. (그랬구나. 특별히 편지 써주

셨어? 선생님이지?) 네. (어떻게?) 제가 어려운 거 일기를 써서 선생님한테 검사를 맡았는데요. (아, 일기검사요?) 네. (그런데, 그 일기를 보시고?) 네. 선생님이 제가 이러한 것 때문에 힘 들어하고 있구나 아시고, 그래서 그게 힘이 됐어요. (사례 #2)

.....뭐 항의 해봤자 이득 볼 것도 없고, 선생님한테 말해봤자 별로 도움 주는 것도 아니고, 혼낸다고 해서 다시 안 그러는 것도 아니니까. 속에서는 되게... 열 받죠. (그 열 받는 걸 꾀꾀 눌러 참았구나.) 네. 어차피 해봤자 별 성과가 없는데 그냥...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결했어요?) 꽤 많이 말을 했어요. 집에 가서도. (집에 가서는 주로 누구랑 이야기했어요?) 어머니랑 아빠랑 주로 말을 하고 그랬는데요. (주로 그런 문제 때문에?) 네. 아무리 그래도 별로 해결방안이 없는데, 그러면은 아빠가 하는 말이 “선생님을 찾아가 봐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가봤자 성과가 없으니까 별로..... (사례 #1)

주제 8. 친절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친밀하고 다정한 교사를 원한다.

교사의 친절함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를 좋아하게 하고 재미있는 곳으로 생각하게 한다고 보고 있다. 외국에서 학생들은 언어는 잘 통하지 않았어도 학교 가기를 즐거워했고 더 열심히 말을 익히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그러한 큰 이유 중 하나는 교사와의 관계 때문이었다고 한다. 또한 교사가 학생 개개인과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으면 급우들과 문제가 있을 때나 학교생활이 힘들 때 이야기 할 데가 없다고 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참으며 그대로 지낸다고 하였다. 교사의 친절함은 새로운 장소에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에게 안정감을 주고 선생님을 신뢰

하게 하는 큰 동기가 되었다. 학교 첫 날부터 선생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외국에서는 선생님이 직접 데리고 다니며 학교에 대한 안내를 해준 후 자신이 생활해야할 학급으로 보내주었다고 하였다. 귀국하여 학급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도 낯설어서 두려워하던 학생들은 수업을 하다보니 선생님이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주어 편찮아졌다고 하였다.

처음에 거기 갔을 때 교무실에서 얘기 나누고 오빠와 엄마는 가고. 거긴 선생님들이 많아요. 하나는 상담 선생님. 하나는 도와주는 선생님. 그 선생님이 저 교실에 데려다 주었거든요. (교실에 데려다 주었어. 그런데?) 다 가르쳐 준 다음에. 여기는 급식실이고 딱. 다 가르쳐 준 다음에 교실에 데려다 주었는데요. 친절하게요. (사례 #11)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무서우니까요. 죽은 듯이 이렇게... (웃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수업하다 보니까요, 웃긴 얘기도 많고... 그러니까... 좀 나아졌어요. (사례 #3)

학생들은 자신들의 눈 높이에 맞추어 주는 교사를 원한다. 이해하기 쉽게 알아듣기 쉬운 단어로 잘 설명해주고 개개인의 학습 진도에 관심을 갖고 가르쳐 주는 교사를 좋아한다고 하였다. 외국의 교사들은 학생이 모르면 몇 번이고 반복하여 쉽게 설명해주었다고 하였다. 귀국학생들은 학습자 수준을 배려하여 수업의 속도를 조절해 주기를 원하며 특히 언어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쉽고 천천히 이야기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 주셨어요?) 좋게 해주셨어요. (좋게? 어떻게?) 이렇게 배려해 주고요. 말할 때 보편은 어려운 단어도 안 쓰고 쉽게, 쉽게 얘기해 주셔서 다 알아듣고 (사례 #12)

(오! 미국선생님 찾아갔어요?) 그 선생님 되게 쉽게 말해주요. 영어를. 그 선생님이 제일 좋았어요. (제일 좋았어. 지금도 그 선생님 기억해?) 예. 편지도 보내고, 이메일도 하고 (사례 #11)

귀국학생들은 한국에 돌아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모르는 것이 있어도 선생님에게 질문을 안 하고 모르는 상태로 그냥 있다가 친구에게 물어본다고 한다. 친구를 사귀지 못한 학생은 책을 보거나 컴퓨터로 인터넷에서 찾아보거나, 학원에 가서 학원선생님에게 물어본다고 한다. 대부분 학생들은 교사를 친밀하게 다가갈 수 없는 존재로 여겨 어려움을 겪어도 찾지 않으며, 설명문제가 있어서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부정적인 경험을 해서 말해보았자 소용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과목시간에 힘들 땐 그러면 어떻게 해?) 뭐, 친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구요. (친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책보거나 찾아보거나. (책 찾아보고? 책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선생님 설명도 잘 듣고 (선생님한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요. 그렇게는 안하고. 그냥 설명 듣고. 모르면 친구한테 물어보고 그래요. (모르면 친구한테 물어보고?) 별로, 다시 선생님 찾아가서 물어보지 않아요. (사례 #7)

(답답할 때 어떻게 해결을 했어? 처음에 와

서 선생님 말씀 못 알아들을 때는?) (웃으며) 그냥 넘어가고 그랬어요. (그냥 넘어갔어?) 네. 학원가면 학원 가서 물어보기도 하구요. (학원 가서 물어보고?) 음... 그냥 학원에서 물어보는 거 같아요. 담임선생님한테는 물어보는 건 없으니까요 (사례 #12)

주제 9. 체벌과 수직적인 지시관계의 권위적인 교사의 태도를 혐오한다.

학생들은 인간으로서 존중해 주기를 희망한다. 체벌은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으로 때리는 것은 정도의 차이를 떠나 그 자체를 혐오한다. 한 두 명의 이러한 교사들과의 경험으로 인해 모든 교사들이 그러리라는 일반화를 시키게 되고 이런 이유로 교사와 마음을 열고 가까이가갈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학생들은 교사와 집단주의 수직적인 관계보다 대인주의 수평적인 관계를 희망하였다. 귀국학생들은 교사의 체벌에 대하여 가장 많은 예민한 반응을 나타내었다. 학생들은 준비물이나 숙제, 명찰 등을 붙이지 않았을 때 등 여러 이유에서 처벌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처벌받은 경험은 학생들로 하여금 억울한 생각이 들게 하며, 말로해도 될 것을 ‘왜 저러시나?’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고 하였다. 학생들은 교사가 학생을 믿어주고 사유를 말했을 때 신뢰하고 들어주는 교사를 원한다.

한국에서는 때리는 거가 너무 싫어요. (때리는 거?) 네. (어. 잘못해서 맞아본 적 있어요?) 1학년 때 있었어요. (1학년 때.) 그게 준비물을 안 가져와서. (준비물을 안 가져와서?) 아니 잊어버렸는데요. 1학년 때 전학 오자마자... (전학 오자마자?) 교문 앞에서 왜 명찰이 없냐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학 왔다고 하니까 못 믿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선생님이. 그래가지

고 괜히 별렀잖아요. (그래가지고 별셨어요?) 억울하고.. 별로..... 별로 좋지 않았어요. (사례 #7)

학생들은 다정한 친구와 같은 교사를 원한다. 외국에서 살다온 학생들은 한국의 교사들이 대부분 엄하고 무섭다고 하며 학생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 말만 한다고 하였다. 처음 적응과정에서 교사의 도움과 역할이 크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사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학생들은 교사와 가까이 지내고 싶은데 교사는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무슨 일이든 편안하게 친구처럼 이야기 할 수 있는 교사를 원한다.

한국에 오니까? 조금 무서워요. 선생님들이 아유. 웃길 때도 있는데. 괜찮아요. (괜찮아? 그러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어.) 음... (웃음)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외국에서 살 때는 이랬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없어?) 되게 외국 선생님은 이해를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선생님은, 여기서, 어떤 선생님은..... 이해 안하고 자기 말만하고 막 때리고. (자기 말만하고 때리고?) 아니. 때리진 않아요. (머뭇) 아니 때릴 때도 있어요. 음... 선생님들 다 때리잖아요. (사례 #11)

저기 솔직히 너무 좋은 선생님 만나서, 좋았어요. 진짜로... (좋은 선생님 만나서 별로 불편한 거 못 느꼈구나) 네. 진짜로...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위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위에서 바라보지 말고) 네, 같이...이렇게 옆에서 친구랑 얘기할 때와 같이 얘기해 주면서... (사례 #5)

학생은 인격적으로 존중받기를 원하였다. 과거의 경험 중 교사의 비인격적인 태도로 인해 부

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한 학생은 외국을 다녀와서 교사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었다고 한다. 외국에서 교사들에게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으면서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치유되고 교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한다. 귀국해서는 적극적으로 선생님과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또 선생님들이 잘 대해주니까 좋다고 하였다.

외국에서는 선생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그리고 되게... 상대방에게... 아, 뭐라 그러지? (상대방한테 어떻게?) 아니요, 뭐라고 하지... 편하기도 하구요, 그러니까 학생한테... 막 대하지 않는 걸 뭐라고 하죠? (막 대하지 않는 거? 존중해, 학생을?) 네! 존중해요. 그거예요. (사례 #10)

선생님들도 되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는 한국에서요 선생님한테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면에서?) 제 짝꿍이 수학책을 안 가져 왔어요 근데 선생님이 딱 불러내시더니 막 싸대기를 때리고 어떻게 하셔서 개가 쓰러졌는데, 신발로 개 배를 막 밟는 거예요. (선생님이?) 네. ○○에 살았었던거요? 너무 충격 받아 가지고 그때부터 선생님... 너무 무서운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성격도 내성적 되고. (오... 그렇구나) 외국에서 선생님 이미지가 달라진거죠 그래서 한국에 다시 와서, 선생님들하고 친해지려고 하고 또 중학교 올라와서 선생님이 잘 대해주시니까. (사례 #2)

논 의

본 연구는 외국 서구문화권에 거주하다 귀국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들의 주변 환경을 통하여 적응에 도움이 되는 요인을 알아보았다. 연구자가 중요하게 여긴 심층면접은 학생들의 정보나 특성들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주요 자료 제공의 출처가 되었다. 심층 면접한 내용을 중심으로 주제와 의미 찾기를 통하여 공통적인 개념을 정리해본 결과 친구, 학업, 교사의 3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9개의 주제를 추출하게 되었다.

해외거주 후 귀국한 중학생들의 경험의 대부분은 첫째, 친구는 학생들의 적응에 가장 큰 도움을 주기도 하고, 놀림이나 따돌림 등으로 심적 고통을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또래집단(peer group)인 친구는 부모로부터 서서히 독립하여 사회화 과정으로 가는 청소년인 중학생의 정신적인 영역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다. 학생들은 인생의 가장 예민한 시기인 사춘기를 친구와 더불어 지내길 원한다. 설명을 잘해주고 친절한 외국 친구들에 비해 같은 나라 사람인데도 한국 친구들은 사귀기가 어렵다고 한다. 해외귀국 청소년의 적응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를 한 김충희(1996)의 연구에 의하면 주로 국내거주 청소년은 자신들의 내적인 문제에 비중을 두나 해외귀국 청소년은 한국에서의 적응, 친구관계에 대한 적응 등의 외적인 환경에 의해 부담을 느낀다고 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살펴볼 때 귀국학생에게 적응과 관련하여 친구관계는 중요한 문제이나 한국에 귀국해서 친구의 도움을 적절히 받은 학생은 드물었다. 이를 통하여 볼 때 교육 현장에서 바람직한 교우관계를 형성 지도에 치중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둘째, 학업은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다. 학력의 수준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뒤떨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각별한 배려와 지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의 대부분 학생들은 나름대로 학력의 수준차이를 극복하고자

부모님의 가정지도와 과외, 학원 등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 사교육비의 지출이 적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외국과의 학력수준 차이로 인해 공부도 힘든데다 부모 특히 어머니의 기대가 몹시 큰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더 나아가 중학교 때 이미 진로가 인문계와 실업계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시험에 대한 부담이 크다. 중학교는 진로지도에 있어 직업의 탐색단계임에도 귀국학생들 대부분이 장래희망을 구체화시키고있어 매우 성숙한 태도를 볼 수 있었다. 김미경(1999)의 연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귀국학생들이 가장 차이를 느끼는 것이 '학습의 내용'이었다. 신진우(1997)의 연구에서와 같이 현지에 한국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하는 학교를 증설하여 본국과의 연계 있는 교육을 실시하며, 국외에서는 귀국해서 교국의 학교에 다시 돌아갈 자국민 학생들을 위하여 국내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단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중요한 타인(significant others)¹⁾인 교사는 학생들의 기대와 불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이 문제에 접하면 친한 친구가 있는 학생은 친구와 이야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가장 가까운 교사를 찾게된다. 외국의 선생님은 다정하고 친절하여 무엇이나 묻고 싶어지며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반면에 한국의 선생님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엄하고 무섭다는 표현이 두드러진다. 어렵고 힘들 때 상담은 필요하고 좋은 것인 줄 알면서도 '지겹다', '안 간다', '있어도 안 갈 것 같

1) 교사와 같이 사회화 과정에서 권위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조지 허버트 미이드(Georgy Herbert Mead, 1863-1931)가 일반화된 타인과 함께 주장하였다.

다'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교사들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교사의 체벌에 대해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성민선 등, 1999)'에도 나타나듯이 의하면 '교사의 감정적인 체벌이 심하다'에 대체로 그렇다(45.0%)와 매우 그렇다(25.5%)로 나타났으며, '선생님은 학생들을 인간적으로 대해 주신다'에 전혀 그렇지 않다(14.3%), 별로 그렇지 않다(42.6%)고 하여 대다수의 학생이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음을 뒷받침하고있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이므로 소수의 연구참여자로 이루어졌기에 이들의 경험을 일반화시키는데 제한점이 있다. 경기도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체류 국가와 그 기간, 체류 동기, 귀국 기간, 귀국 동기 등의 개인차가 있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연구결과와 연구자의 관찰을 바탕으로 귀국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한다.

첫째, 교사의 역할에 관한 중요성이다. 불행히도 외국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교육현장에서 상담을 전담하는 전문상담자가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도 2000년도 이후부터 대부분의 교육대학원에서는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전문상담교사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에는 이 과정을 수료한 많은 교사들이 현장에서 학생들의 상담과 생활지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비록 교사이면서 상담자인 이중역할로 인해 한계는 있지만 교사들은 학생들과 생활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찰 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 주은선(1999, 2000)은 한국에서 교사들이 상담교사로서 특히 인간중심이론에 바탕을 둔 상담을 하기를 권하고 있다. 인간중심 접근은 비단 상담뿐만이 아닌 사회의 다양한 분야 특히 교육현장에 큰 기여를 하였다. Rogers는 학습의 촉진자인 교사와 학생의 "관계의 질"을

강조하고, 교사는 상담자와 마찬가지로 진지하며 진실(realness)해야한다는 것이다(Kirschenbaum & Henderson, 1989). 여기에는 교사의 지속적인 격려와 칭찬, 양육적인 태도, 배우는 학생들에 대한 신뢰와 존중, 자유로운 학습분위기(freing climate)가 조성되어야한다고 하였다. 이는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학습과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믿는 환경을 뜻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살펴보면 학생들은 외국에서 경험한 자기주도적인 학습환경과 따뜻하고 다정다감한 교사를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학생들은 한국에 돌아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느끼면서도 실제로 상담실을 찾아가지는 않았으며, 자신의 문제는 주로 친구와 이야기를 하며 해결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상담(helping)은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탐색하고 통찰하여 자신의 인생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내담자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심리적인 조력의 과정이다(주은선, 2001). 점차 학습전달자로서의 교사보다는 인성과 생활지도자로서의 교사가 강조되는 요즘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해본다.

둘째, 학교 환경이 학교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학교환경은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하는 생활의 장으로 학생들의 학습경험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교수하는 곳이다. 학교 환경은 학교조직체 속에서 구성원들에게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조건 및 자극의 총화(總和)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학교환경은 학생이나 교사들에게 여러모로 영향을 미친다(탁영진, 1994). 연구하는 과정에서 면 접은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상담실이나 기타 교실을 이용하였는데 학교 상담실은 학교마다 나름대로 특색 있게 꾸며져 있었지만 시설은 매우 미흡하였다. 학교 상담실은 칸막이를 하고 여러 명의 교사가 근무하기도 하고, 대부분 기타 교실

을 활용하여 소란스러운 주변의 소리가 그대로 들리기도 하고, 느닷없이 외부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기도 하여 학교의 상담실이 학생들과 자연스런 대화의 공간으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였다.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교내에 학생들의 문화공간이 있다.’에 대해 학생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58.8%)와 별로 그렇지 않다(29.9%)로 대답해 대부분의 학교에 학생을 위한 공간의 배려가 없음을 알 수 있다(성민선 등, 1999).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상담실을 찾지 않는다고 하소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찾아오고 싶은 물리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다.

셋째, 귀국학생들을 위한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김미경(1999)의 연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전남지역에서 생활하는 귀국학생이 다른 지역의 아동보다 적응을 잘한 것은 교육부 지정 귀국학생 특별학급 연구학교로서 다양한 적응 프로그램으로 지도한 결과로 보고 있다. 학생들은 가장 먼저 친구와 가까워 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다. 비슷한 연령의 유사한 생활경험 및 가치관 등을 지닌 청소년을 일정기간 훈련하여 또래들의 문제해결에 조력하여 지지적(支持的) 도움을 제공하는 또래상담은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학교상담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또래상담 또는 동료상담제(peer counseling)는 학교상담 기관이 중심이 되어 청소년과 대학생 대상의 다양한 동료상담제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그 효율성을 입증하고 있다(Carr, 1988; Frisz, 1999). 이는 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도 제안하고있는 바이다(김지현, 주은선, 2002). 또한 집단 상담의 활용인데, 집단상담은 한 명의 상담자가 여러 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집단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활용하여 개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촉진하는 것으로 비용이 저렴하게 들어 경제적이며, 교사가 개개인을 대상으로 개별상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Ellis(1973, 1979)의 합리적 정서이론에 근거한 집단상담 프로그램들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고와 정서를 발달시킴으로서 건 강한 생활의 자세를 갖게 하고 다른 사람과 좋은 인간 관계를 형성하며 학생들의 관점이나 생각, 즉 비합리적 사고를 합리적 사고로 바꾸어 줄 수 있기에 학교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다. 학교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집단상담프로그램 중에 한가람 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입생 학교 적응 프로그램」은 낮은 학교에서 적응해야하는 귀국학생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해외거주 후 귀국한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서 가정환경과 부모의 영향은 주목할 만 하다. 연구결과 내용에서 나타나듯이 학교에서는 힘들어도 안정적인 가정의 분위기가 두 문화를 오가는 학생들에게 강인한 적응력을 길러준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학생들의 가정은 대부분 화목하였으며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부모들은 학업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으며, 특히 어머니는 학습의 조력자면서 훌륭한 상담자로서 격려와 지지자의 역할을 하였다. 이들 대부분의 어머니는 학습을 직접 지도하였고, 남편과 떨어져 살면서 자녀의 외국유학에 동행하여 뒷바라지를 하기도 하였다. 김효기(2002)는 귀국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생활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것을 가정경제 수준과 부모의 지지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고, 김충희(1996), 또한 가정배경이 지니고 있는 교육환경과 경제적인 도움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것은 이 연구의 내용

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Garfield와 Bergin (1994)의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에서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심리치료를 다룬 장을 살펴보면, 이들을 상담하는데 있어서 가정은 물론이고 총체적인 지역사회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거주 후 귀국한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가정과 연계된 다양한 방안들, 특히 부모의 참여,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역할 등의 총체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기를 희망해본다.

참고문헌

- 강봉규 (2001). 심리검사의 이론과 기법. 서울: 동문사.
- 강희천 (1998). 21세기 청소년 지도대책과 과제.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청소년선교회.
- 경기도교육청 (2002). 귀국학생교육 주요추진계획. 교육인적자원부 (2001). 유학 안내.
- 권선미 (1997). 해외 귀국아동의 초등학교 적응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경 (1999). 해외 귀국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시엽(역) (2002). 생활적응을 위한 심리학. 서울: 문음사.
- 김영남 (2000). 선교사와 문화충격. (C)Copyrights World Missions Training Center.
- 김유미 (1988). 귀인성향·자아개념과 학업성취·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해외귀국 학생과 일반학생의 대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 주은선 (2002). 대학생의 관점에서 본 “상담관계” 기대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14(4), 789-804.
- 김진숙 (1983). 학급 내 인기아와 피배척아의 자아개념과 학업 성취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충기, 강봉규 (2001). 현대상담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 김충희 (1996). 해외 귀국 청소년의 적응과 자아 존중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형태 편저 (2001). 집단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동문사.
- 김효기 (2000). 스트레스, 대처,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지지이 귀국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덕성여대열린교육연구소 (1997). 중등 열린교육 연수 자료.
- 동아일보 (1998). 국내 적응문제: 귀국 청소년유 학생 「낮선 한국 고등」.
- 박경혜 (1997). 인지·정서·행동치료. 서울: 학지사.
- 박용헌 (1983). 학교사회. 서울: 배영사.
- 법무부 (2002). 출입국관리통계연보.
- 서봉연, 이순형 (2001). 발달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서용선 (1980). 아동의 자아개념과 동료간 인기도 및 학업성취의 상관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민선 등 (1999).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사회사업 실천모델 연구.
- 신진우 (1997). 귀국자녀 교육에 대한 관련집단의 기대수준과 수행수준 차이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인경 (1985). 해외 귀국학생의 생활적응문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중 (1996).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와 유학생의 신념체계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용숙, 김영천 (1999).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교육과학사.
- 이장호 등 (1999). 상담의 연구방법. 서울: 박영사.
- 전정태 (1987). 교육사회학. 서울: 형실 출판사.
- 정선희 (1984). 긍정적 자아개념 활동이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경진 (1994). 정체성의 혼성적 구성에 관한 연구: 귀국한 외교관 자녀들의 삶에 관한 문화기술지.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선일보 (2000). 초등학교 불법유학 급증.
- 주은선 (1999). 상담지도자로서의 교사의 역할. 덕성여대 열린교육연구소 4회 공개강좌.
- 주은선 (2000). 행복한 학생을 만드는 교사의 역할. 덕성여대 열린교육연구소 6회 공개강좌.
- 주은선 (역) (2001). 상담의 기술. 서울: 학지사.
- 최화순 (1990). 해외 귀국아동의 적응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탁영진 (1994). 탐구 교육학. 서울: 박문각.
- 홍경자 (2001). 상담의 과정. 서울: 학지사.
- 홍숙기 (2000). 성격심리(상). 서울: 박영사.
- Carr, R. A. (1988). The city-wide peer counseling program,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0 (3), 217-232.
- Cohen, S., & Heberman, H.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 Ellis, A. (1973). *Humanistic Psychotherapy: The Rational-Emotive Approach*. New York: Crown Publishers and McGraw-Hill Paper Backs.
- Ellis, A. (1979). Rational-Emotive therapy, In R. J. Corsin (Ed). *Current Psychotherapies (2nd ed)*. Itasca IL. F. E. Peacock.
- Ericsson, K. A., & Simon, H. A. (1984) *Protocol analysis: Verbal reports as data*. Cambridge, MA: MIT Press.
- Frisz, R. H. (1999). Multicultural peer counseling: Counseling the multicultural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ce*, 22(4), 515-526.
- Garfield, S. L., & Bergin, A. E. (1994).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 New York: John Wiley & Sons.
- Glaser, B., & Strauss, A.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Chicago: Aldine.
- Kirschenbaum, H., & Henderson, V. L. Eds. (1989). *The Carl Rogers reader*. Boston: Houghton Mifflin Com.
- Lazarus, R.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McGraw-Hill.
- Oberg, K. (1960). Cultural shock: Adjustment to new cultural environment. *Practical Anthropology*, 7, 177-182.
- Pedersen, P. B. (1991). Counseling International Student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9, 10-58.
- Quintana, S. M. (1995). Acculturation Stress: Latino Immigrant and the Counseling Profess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3, 68-73.
- Schusky, Ernest L., & Culbert, T. Patrick. (1978). *Introducing Culture*. New York: Prentice Hall Inc. 한상복, 이문용, 김광역 (공역). 1985, 문화인류학 연구, 서울: 서울대 출판사.

원고접수일 : 2003. 3. 30
수정원고접수일 : 2003. 5. 26
게재결정일 : 2003. 6. 7

The School Adaptational Characteristics of Middle School Students Who Returned From the Western Countries

Jae-Ok Jeong

Eun-Sun Joo

Duks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mmon adaptational characteristics of middle school students who returned from the Western countries. Based on the findings, the researchers seek to provide appropriate guidance and counseling programs for the students who had similar experience. The three domains of friends, academic life and teachers among 14 students were identified through intensive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Results suggest that the students (1) had at least more than one friends in the process of adaptation in both countries, abroad and Korea; (2) expressed that they need help in understanding cultures in order to make friends; (3) wanted friends who are genuine and sincere; (4) experienced academic gap between what they have learned abroad and in Korea; (5) expressed that they are pressured by midterm and final examination; (6) wanted interesting and motivating academic activities (7) wished that teachers treat them equally as they would treat other students, yet show care and interest; (8) hoped that teachers are kind, warm and intimate; (9) were disgusted by teachers who are violent, authoritative and directive. Several suggestions are presented to support and help the growing number of returning students who had experience living abroad.

Key Words : *Returning Students from Abroad, adolescent adaptation, school counseling & guidance*